

GFEZ 투자유치 활성화 위해 전문가 머리 맞댄다

데이터산업 정책 동향 청취·황금산단 데이터센터 구축 자문 미 IRA 시행에 따른 기업 동향 및 외자기업 유치 전략 논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송상락, 이하 광양경제청)은 광양만권 전략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산업과 해외마케팅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각각 열어 올해 성과를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광양경제청은 먼저 12일 오전, 서울 나인트리 로카우스 호텔 용산 회의실에서 'GFEZ 데이터산업 전문가그룹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김경만 투자유치본부장 주재로 데이터산업 분야 자문위원과 전남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 정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등 최근 정책 동향을 청취하였으며, 전남클라우드데이터센터의 사업계획 설명과 전문가들의 자문으로 진행되었다.

고도화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는 챗GPT 등 데이터에 기반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급격한 확산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뒷받

침하는 필수 기반시설로 수요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양경제청은 지난 전남도와 지난 8월 광양만권 내 황금산단에 총 사업비 7,500억원 규모의 전남클라우드데이터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업종까지 추가된 산업부 고시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세부계획을 유관기관과 협의완료 할 계획이다.

이어서 광양경제청은 같은 날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회의실에서 '2023 해외마케팅 분야 전문가 그룹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민일보 한국지사, 주한미국상회, 한독상공회의소 등 국가별 기업 및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논의를 나누었다.

간담회는 GFEZ 외자기업 동향 및 2024년도 신규 외자기업 계획 소개에 이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에 따른 ESS 산업발전전략



발표, 최근 발표된 미국 IRA 세부규칙과 중국 기업 동향에 대한 특강과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광양만권의 외자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최근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ESS 산업과 미국 IRA 시행에 따른 공급망 전환 기회를 한국의 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유치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으며, 기업과 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해외 IR은 마케팅 효과를 제고시키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상락 광양경제청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광양만권에 데이터 센터가 성공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또한 "광양만권은 한국의 FTA를 활용해 수출입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과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현장 의견과 정책제언을 외자기업 유치 전략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 정부 신설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공식선언...도정 역량 집중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6일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의 전남 유치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민청은 정부가 국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신설을 추진 중인 조직이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7월 법무부와 의 이민제도 토론회, 11월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세미나 등을 통해 정부의 이민청 설립을 적극 지지했다.

또 이민청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광역자치체엔 인구청년이민국, 기초자치체엔 인구청년이민과 설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이민청은 세부 계획 수립과 분야별 쿼터 규모 등 정책 결정에 집중하고, 현장을 잘 아는 광역단체와 기초자치체는 외국인 유치와 체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등의 역할 분담을 제안해 왔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비자 설계와 발급 권한을 포괄적으로 주는 광역비자 도입도 제안했다. 이는 발급 대상을 계절근로자 100%, 고용허가제·유학비자·숙련 기능인력 50%를 부여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외국인을 체류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다.

이처럼 이민청 설립 지지와 함께 이민청의 효과적 운영 방식, 파격적 광역비자 도입까지 주도적 역할을 이끌어 온 전남에 이민청을 설립할 경우 혁신적 '광역비자' 운영 등 국가 이민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테스트베드도 거듭날 것이라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청년인구 유출, 고령화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가장 큰 지역인 전남에 이민청을 설립하는 것은 국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이라는 이민청 설립 취지와도 궤를 같이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전남은 매년 8000여명의 청년이 광주·서울·경기 등으로 유출되고 있다. 고령화 비율도 26%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전남의 주력산업인 조선업·농수산업 등 주요 산업 현장은 외국인력 없이는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 결과 빈 곳을 메꾸기 위한 외국인 수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전남은 광양항·무안국제공항·KTX·고속도로 등 육·해·공 교통 인프라를 갖춘 동북아 관문도시로 외국인의 접근성이 좋고, 2026 여수세계박람회와 제33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33) 유치 추진, 3조 원 규모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등으로 국제도시로서의 인프라와 위상도 갖춰가고 있는 등 이민청 설립을 위한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전남도는 외국인 정책 선진지로서 외국인이 지역사회 주축으로 살아가도록 지난 7월 외국인 전담팀을 신설했고, 내년 1월에는 기존 '인구청년 정책관'을 3급 상당의 '인구청년 이민국(TF)'으로 상향해 더욱 체계적이며 혁신적인 외국인 정책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 기자

광주시, 주거취약계층에 주거급여 지원 확대한다

광주시가 내년부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광주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완화하고, 임차가구의 급여는 평균 6.9% 인상에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에게 지원하는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된다.

임차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시지원한다. 기준임대료는 2024년부터 전년 대비 평균 6.9% 인상돼 1인 가구 21만6000원, 2인 가구 24만 원, 3인 가구 28만7000원, 4인 가구 33만3000원 등이다.

내년부터 중위소득기준 완화·임차가구 급여 인상 수선유지에 지하세대 침수방지 시설 지원 포함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 원·3년 주기), 중보수(849만 원·5년 주기), 대보수(1241만 원·7년 주기)로 구분해 지원한다. 특히 (반)지하세대에 대한 침수방지 시설 지원을 새롭게 시행한다.

광주시는 올해 6만2046가구에 1017억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했다.

정현윤 시 주택정책과장은 "매년 중위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며 "주거취약계층을 선제 발굴해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용일 기자

K-광융합·생체의료소재부품 중기 베트남 시장개척 '결실'



수출상담 29건, 555만 달러 계약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는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서 국내 K-광융합·생체의료소재부품 중소기업 시장개척에 나섰다. 17일 밝혔다.

'베트남 광융합·생체의료소재부품 무역촉진단' 11개사는 현지 베트남 해외바이어 27명과 수출상담회를 통해 광분배기, 광 네트워크 스위치, IOT기반 스마트LED 가로등, 빔확장형 비접촉식 광케네터, 자동심장중격기, 의료용 온열기, 심미수복용복합레진 등에 대한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현지 바이어 26개사와 수출상담 29건을 통해 555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또 베트남 현지기업의 제품 생산현장 및 설치현장 등을 방문해 국내기업과 베트남 현지기업간 신규프로젝트 발굴 및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의 자리도 마련했다.

(주)씨엔와이더스 조대형 대표는 "대의 통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베트남 신시장에 대한 진출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이번 무역촉진단 활동을 평가했다.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김동근 상근부회장은 "국내 광융합 및 생체의료소재부품 기업의 국내시장 과부화로 해외시장으로 전략적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마케팅지원을 위한 신규사업발굴과 국제협력, 해외관로 개척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해 지속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과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수권 기자

동부취재본부김승호 기자

5. 발전소명	6. 신청인	7. 용량(kW)	8. 발전소 위치 및 면적
1 나주교산1호 태양광발전소	이명남	99.56	전남 나주시 세기면 교산리 664-11 (1필지) (1,495㎡/7,749㎡)
2 나주교산2호 태양광발전소	정은우	99.56	(819㎡/7,749㎡)
3 나주교산3호 태양광발전소	오미희	99.56	(905㎡/7,749㎡)
4 나주교산4호 태양광발전소	이교운	99.56	(972㎡/7,749㎡)
5 나주교산5호 태양광발전소	이정규	99.56	(819㎡/7,749㎡)
6 나주교산6호 태양광발전소	김태경	99.56	(830㎡/7,749㎡)
7 나주교산7호 태양광발전소	오영욱	99.56	(889㎡/7,749㎡)
8 나주교산8호 태양광발전소	김정숙	99.56	(1,020㎡/7,749㎡)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5. 발전소명	6. 신청인	7. 용량(kW)	8. 발전소 위치 및 면적
1 나주형전1호 태양광발전소	양희종	99.56	전남 나주시 왕곡면 향전리 191-2 (1,160㎡/10,249㎡)
2 나주형전2호 태양광발전소	김동주	99.56	(887㎡/10,249㎡)
3 나주형전3호 태양광발전소	김윤호	99.56	(1,263㎡/10,249㎡)
4 나주형전4호 태양광발전소	송현수	99.56	(871㎡/10,249㎡)
5 나주형전5호 태양광발전소	이성남	99.56	191-2 (892㎡/10,249㎡)
6 나주형전6호 태양광발전소	송현수	99.56	191-4 (990㎡/10,249㎡)
7 나주형전7호 태양광발전소	이순태	99.56	191-52 (1,037㎡/10,249㎡)
8 나주형전8호 태양광발전소	김종성	99.56	(885㎡/10,249㎡)
9 나주형전9호 태양광발전소	김종현	99.56	(959㎡/10,249㎡)
10 나주형전10호 태양광발전소	김영숙	99.56	(1,305㎡/10,249㎡)